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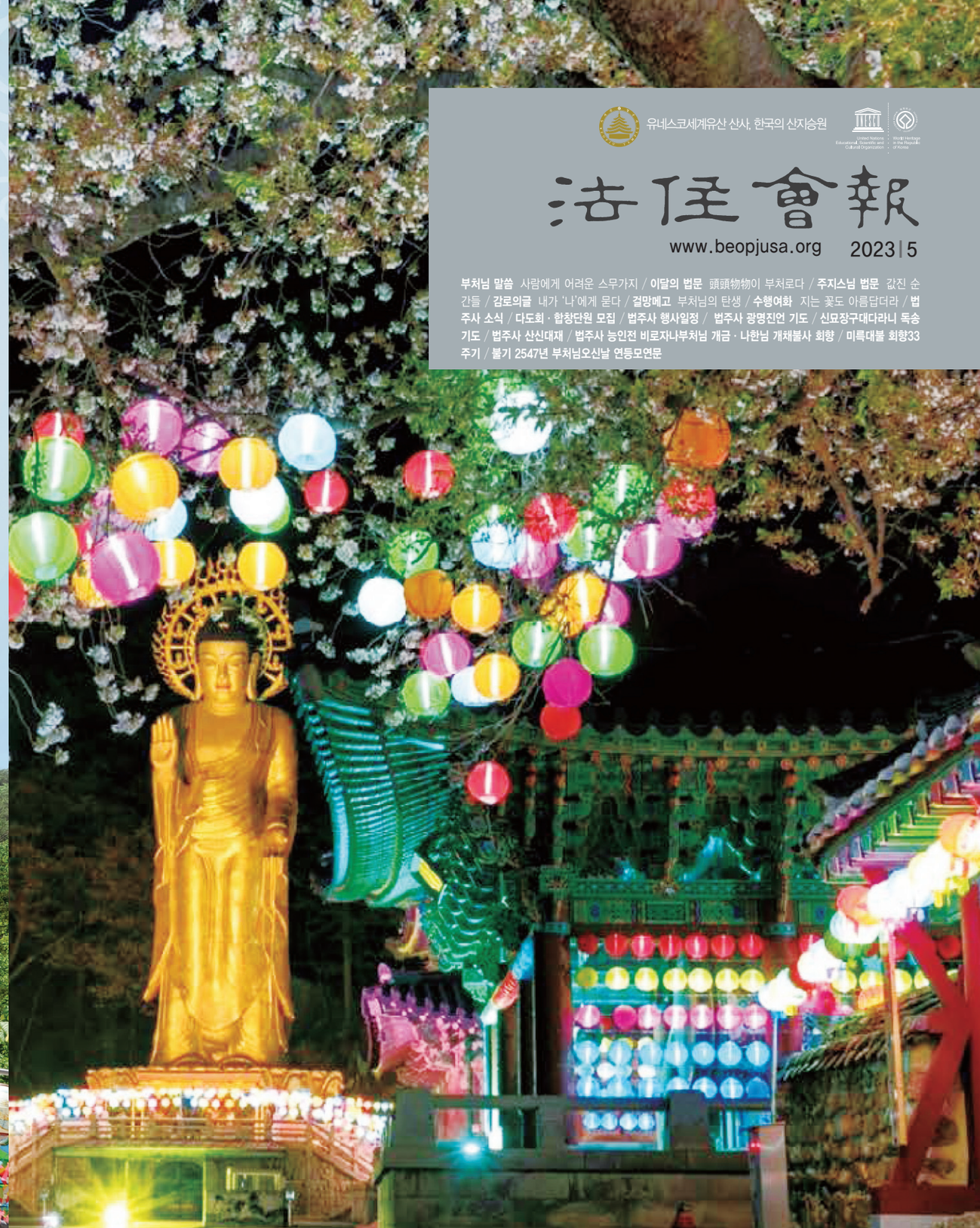
계묘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보전** : 3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5

부처님 말씀 사람에게 어려운 스무가지 / **이달의 법문** 頭頭物物이 부처로다 / **주지스님 법문** 값진 순간들 / **감로의글** 내가 '나'에게 묻다 / **걸망메고** 부처님의 탄생 / **수행여화** 지는 꽃도 아름답더라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법주사 산신대재** / **법주사 능인전 비로자나부처님 개금 · 나한님 개채불사 회향** / **미륵대불 회향33주기** /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문**

사람에게 어려운 것 스무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스무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빈궁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어렵고,
호귀豪貴한 사람은 도道를 배우기가 어렵고,
수명을 버리고 곧 죽기가 어렵고, 불경佛經을 얻어 보기가 어렵고,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색色을 보고 참기가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욕辱을 당하고 진심眞心 내지 않기가 어렵고,
세력을 보고 세력을 탐하지 않기가 어렵고,
일에 다다라서 무심하기가 어렵고,
넓게 배우고 깊이 연구하기가 어렵고,
아만심我慢心을 제거하기가 또한 어렵고,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가 어렵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기가 어렵고,
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가 어렵고,
선지식善知識을 섬기기가 어렵고,
마음을 보아 도道를 이루기가 어렵고,
많은 중생의 생각을 따라 제도하기가 어렵고,
경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고,
모든 수단과 방편을 알기가 어렵느니라.
〈사십이장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5 | 통권 376호



2 부처님 말씀 사람에게 어려운 스무가지
4 이달의 법문 頭頭物物이 부처로다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값진 순간들 정도 스님
10 감로의글 내가 '나'에게 묻다 장산 스님
14 걸망메고 부처님의 탄생 진정 스님
16 수행여화 지는 꽃도 아름답더라 현진 스님
18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1 법주사 산신대재
22 법주사 능인전 비로자나부처님 개금 · 나한님 개채 불사 회향 및 점안 법회
23 미륵대불회향 33주기
24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5월호 통권 376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로다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法無頓漸이나 人有利鈍이로다.
迷卽漸勸이나 悟人頓修로다.
識自本心이니 是見本性이로다.
悟卽元無差別이요.
不悟卽長劫輪廻로다.

불법에 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가르치지만 깨달은 사람은 단번에 닦는다.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으면 본래부터 차별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혜능 대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불도를 닦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부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말하는 이것을 떠나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부처를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밖에서 부처를 찾습니다. 안에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바로 참 면목을 깨달은 것이지만 밖에서 찾는 사람은 영겁이 지나도록 부처의 그림자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동산수초東山守初 선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동산 화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이 세 근이니라(麻三斤)"
어느 날 또 한 사람의 수행승이 운문문언雲門文偃화상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운문 화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똥 묻은 막대기니라."
한 수행승이 조주종심선사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祖師西來意)?"
그러자 조주 화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栢樹子)"

이 세 가지는 우리 선문禪門에서 아주 유명한 공안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조사들은 부처를 묻는 수행자에게 '삼세근'이라거나 '똥 묻은 막대기'라거나 '뜰 앞의 잣나무"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 문답들은 아무 의미 없는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동산이 살던 강서성 양주 땅은 옷감을 짜는 삼의 생산지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동산선사는 마침 삼의 무게를 달고 있었는데 그때 수행자가 찾아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옛날 중국에서 스님들이 입는 장삼의 무게는 세 근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화상의 대답은 '세 근짜리 장삼을 입는 그대가 곧 부처'라는 뜻으로 한 말씀인 셈입니다.
'똥 묻은 막대기'도 같은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산간벽지 농가에서는 나무 막대기나 짚으로
밑을 닦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똥 묻은 막대기는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아니면 똥을 닦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화장실에서는 부처보다 이것이 더 요긴할 것입니다.
더럽고 깨끗하고 넘어서는 그 자리에 바로 부처의 참모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뜰 앞의 잣나무'도 같은 뜻입니다. 조주 화상이 거주하던 조주 관음원에는 경내에 커다란 잣나무가
있어서 백림사라고도 불렸습니다. 누구는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승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묻는 질문에 조주가 경내에 있는 나무를
가리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일체의 망상과 분별을 씻어내고 보면
삼라만상森羅萬象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찌 잣나무만 부처이고
측백나무는 부처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 스승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祖意明明百草頭
春林花發鳥聲幽
朝來雨過山如洗
紅白枝枝露未收

백 가지 풀 끝마다 조사의 뜻 분명하니
봄 숲에는 꽃이 피고 새소리 그윽하네.
아침 비 지나가니 산색은 씻은 듯하고
붉고 흰 가지에는 고운 이슬 맺혀 있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공안을 해석했으니 지해분별知解分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참선 수행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지해분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공안에 들어 있는 뜻을 이해하는 것과 심득心得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라만상과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아는 것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든다면 우리는 유치원에서 대학원을
나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안을 해석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곧 부처임을 알고
삼라만상이 곧 부처임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부처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수행자의 진정한 화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누가 1,700가지 공안을 다 해석한다 해도 그 공안이 의미하는
본뜻인 '그대가 곧 부처요, 삼라만상이 곧 부처'라는 뜻을 알고 하루라도 부처로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안에 대해 그 뜻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말에 떨어지지 말고 말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처落處를 모르고 허둥대다가는 혜능대사의 말처럼 장겁윤회長劫輪廻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는 동림상총東林常總선사에게 선을 배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직관한 그는 절에서 내려오다가 이런 시를 지어
스승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儞日如何擧似人

계곡의 물소리는 장광의 설법이요.
산빛은 그대로 법신불의 모습이로다.
어젯밤 깨달은 팔만사천의 법문을
어떻게 그대에게 설명할 수 있으랴.

주지스님 법문

값진 순간들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고 했더니 어느새
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급하게 허둥대며 시간을 보냅니다.

허둥대며 일을 하고 나서는 후회하지만
또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허둥대는 버릇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이 바빠서,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위안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시간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허둥대는 자신에게 끌려가면서
허둥대는 습관에게 끌려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값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합니다.

내가 '나'에게 묻다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류에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나는 무슨 지혜를 써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옛 조사스님들의 말씀에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선사들의 말씀이 있다.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만
지혜와 복덕을 갖출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가 나이면 분명 나는 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하니
백번 천번 곱씹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잊었다가는 때때로 생각이 나서 곱씹어 보지만
실마리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저렇게 떠올려 보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느 평범한 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승단의
대중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시고 오도悟道한
대선사께서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했기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되새겨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선정에 들어 살펴보니
무릎을 '탁'치면서 느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왜 역대 선사님들은 그렇게 알기 쉬운
도리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결과론적 이야기만
하셨을까? 하고는 의문이 생겼다.
역시 그럴 만한 이유도 짐작이 갔다.
여기에 동산양개洞山良价 화상의
과수게過水偈를 소개한다.

절기종타멱切忌從他覓
초초여아소迢迢與我疎
아금독자왕我今獨自往
처처득봉거處處得逢渠
거금정시아渠今正是我
아금불시거我今不是渠
응수임마회應須恁麼會
방득계여여方得契如如

간절히 말하건대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나와 더불어 더욱 멀어질 것이다.
이제 나 홀로 가는 길에서
어디에서나 그를 만날 것이다.
지금도 그는 곧바로 나이지만
이제 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



응당히 이렇게 깨달으면
바야흐로 참된 면목(여여)과 계합한다 하리.

후학들의 경솔하고 가벼운 깨달음에 경계를 두어
신중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옛날에 '과수원과 두 아들'이란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한 오천 평 남짓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시다가 임종에 이르러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시기를 '저 과수원에 보물상자를
묻어 두었다. 부지런히 흙을 파서 찾게 되거든
너희 두 형제가 공평히 나누어 쓰거라.
다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말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도둑이 붙게 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 말이다.
비밀스러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아비 심정을
이해하거라.'하시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는 부지런히 과수원 땅을
일구었지만 쉽게 보물상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왕 뒤진 땅이니 그곳에 거름도 주고 하여
사과나무 사이로 간작으로 콩도 심고 배추, 무,
상추 같은 채소도 심어 가을에는 제법 쏠쏠한
수입원이 있었다.
그다음 해도 과수원을 샅샅이 뒤지기를 한
3년 하고 나니 5천 평 과수원을 다 뒤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유언하신 보물상자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형제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을 리가 만무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을까? 하는 차에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형제가 3년 동안 부지런히

일구어 놓은 과수원은 주 작물인 사과뿐만 아니라,
간작으로 채소 농사까지 쏠쏠한 수입원이
형제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었다.
아! 아버지께서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으른 형제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역대 선사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직설적인 화법을
피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창조적 깨달음을 은근슬쩍 주문하셨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잃을 수 있음을 시사時事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란 중요한 이슈[issue:논점論點]에
주석註釋을 달지 않을 수 없는 사명감에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다. 설사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섣부른 주석이었다 할지라도
허물은 내게 있고 수행하는 후학들의 디딤돌이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공부인들의 미래의 큰 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내용은 이러하다.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할 때 '그'란 현재 나를 구성한
육체와 정신세계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란 말'은 현재
나를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세계는 참다운 '나'
여여如如 혹은 진여眞如, 원각圓覺, 불성佛性,
청정각지淸淨覺地, 공성空性으로 이름하는
절대적인 자리의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다.
이러한 설명을 들어도 역시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논리는 사변적思辨的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존적인 것을
아무리 논리로 잘 설명해도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부처와 중생이
공유한 자리이지만, 천하와 더불어 짝하지 않는
절대한 깨우침이 없고서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선사大禪師께서 '나는 깨달았노라.' 하는
유치찬란幼稚燦爛한 말씀으로 중생을 현혹할 수는
없는지라 부득이 '그는 나이지만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매우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말씀을
던지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감득感得하기에는 나에게 약 15년이란
지난至難한 반복적인 의문과 물음, 화두와의
혹독한 시련이 있었다.
그전에는 왜? 선사들께서는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중생들의 애간장을 다 태우는지 알 수 없었다.
웬만하면 무슨 약과 무슨 마사지 법과
무슨 처방을 주실 만도 한데,
큰스님의 처방은 오히려 간명하고 단순했다.
물론 그 선객은 한 일주일 앓다가 쾌차해 졌다.
역시 큰스님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정말 비정하고
냉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큰스님이란 사람이 저런 인물인가 하고
의구심疑懼心을 자아냈겠지요.
하지만, 비상한 일이 있을 때 비상한 결심으로
평범함을 초월할 수 있겠지요.
누가 그랬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하고 힘든 일을
내게 안겨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려 공민왕 때 나옹선사는
스님회상에 한 선객이 중병을 앓아,
선원 유나(지도 선객)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객을 위해 위문차 한번 큰스님의 병문안을
청하였다.
스님께서 쾌히 승낙하시고 선원의 중병을
앓고 있는 선객을 만났다.
'수자는 어디가 아프신가?' 하니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아프고 쑤시니 정신이 혼미하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하였다.
나옹선사께서 '이때야말로 그대의
전정한 살림살이를 살펴보아라. 자네의 주인공을
거각擧覺하라. 이 아픔과 더불어 열풍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하고 똑똑히 거각하라!' 하시고
물러가셨다

중국 당나라 때 한 지방 장관이
(약산유엄선사藥山惟儼禪師 : 751~834)를
찾아와 진리, 즉 도道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공자님도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떠나도 좋다.'는 뜻으로
인생 최고최대의 가치를 도에 두었다.
유엄선사의 대답은 너무 간명하고 현실적이다.
현실을 여의고 따로 도가 없다는 뜻이다.

"운재청천雲在淸天 수재병水在甁"

'흰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나의 물병에 있네.'

부처님의 탄생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붓다의 출생은 기적적인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다고들 한다.
후기 경전들에는 붓다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하얀 아기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붓다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꿈은 마야 부인이 황제나 위대한 종교 선사가
될 아들을 수태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출산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마야 부인은 관습대로 출산을 위해 샤키아 왕국의
수도인 카필라바스투에서 친정을 향해 떠났다.
왕비와 수행원들이 룸비니의 멋진 숲에 도달했을 때,
왕비는 산고를 느껴 살라나무(보리수) 줄기를
붙잡고 서서 출산을 했다.
이 위대한 사건에 경이로움을 더하기 위해
천상의 주민들이 내려왔다고 한다.
붓다의 출생이 기쁘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지가 흔들렸으며, 신들은 땅에 아이를
놓고 기적처럼 소나기를 내려 목욕을 시켰다.
아이는 즉시 일어나서 일곱 걸음을 떼고는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환생임을 선언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고타마 싯달타' 였다.
싯달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자'라는 뜻이고,
고타마는 고대 인도의 현자 이름을 딴
씨족의 명칭이다. 붓다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났으며,
아이는 이모인 마하파지파티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녀는 슈도다나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팔리 경전에는 붓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거의 없지만,
인도는 1년에 세 계절이 있는데 붓다는
계절마다 바꿔 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세 별궁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다.
비록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청년은
멋진 옷에 향으로 치장을 하고서,
자신의 일상적 욕구를 모두 들어주는 음악가들과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궁전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또한, 붓다는 날카로운 지성과
정신력을 잠재하고 있는, 조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묘사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오욕락에 파묻혀 사는 인간의 더러움과
차별을 두고자 하는 후세인들의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위대한 위인에 대해서는 그 수태와
탄생에 대해 이렇게 정형화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유독 부처님의 탄생을
신격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당시 불전문학가들이 문학적으로 서술하다 보니
과장된 표현이 가미된 것이다.
성인에 대한 신격화는 비록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성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징을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이 속에 숨어 있는 상징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다음은 탄생설화에서 보이는
상징 속에 숨은 의미를 살펴보자.
태자가 두 발로 일어서서 7보를 걸었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부터 신 중심적인
노예도덕(slave moral)이 부정되고 인간의
주체성이 만천하에 천명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 탄생게야 말로 부처님의 탄생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불교의 발생은 당시 인도 사회의
전통 종교였던 신 중심적인
브라만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브라만교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뿐만 아니라 매사에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식 만능주의와 브라만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었다.
부처님의 탄생은 바로 신에 대한 복종과 희생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주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종교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숙명론과 결정론(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운명)의 극복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꽃은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표현된다.
즉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하다는 뜻이다.
연꽃은 비록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꽃잎은 티끌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하다.
이러한 상징은 곧 인간이 비록 오욕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곧 싯달타 태자가 비록 보편적
인간과 같이 한계상황을 안고 태어났지만,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는 꽃도 아름답더라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여류시인 매창梅窓의 시조 중에 '이화우梨花雨 흩뿌릴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척 맘에 든다. '비처럼 흩날리는 배꽃'의 광경을 목격하고 나면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함축된 절창인지를 알게 된다. 어젯밤 삼경에 밖으로 나가 배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들어왔다. 일찍이 고려 후기 매운당梅雲堂은 '이화월백하고 은한銀漢이 삼경인 제'라고 노래했다. 나도 은하수 반짝이는 그 시각에 맞추어 달빛 아래서 감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달빛을 조명 삼아 바라보는 배꽃의 자태는 가히 고고하고 환상적이었다. 이때쯤 보아야 배꽃이 지닌 고결한 느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 뭐니 뭐니해도 배꽃은 달빛을 무대로 관조해야 제맛이 난다. 화려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그러나 순수하고 다정한 배꽃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볼만합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적이고
배꽃은 가까이 보아야
그 자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법문이다. 올봄에는 매화, 벚꽃, 복사꽃, 배꽃을 가까이 두며 원 없이 관찰하며 눈 호강을 했다. 여한 없이 활짝 핀 벚꽃의 낙화는 참으로 장엄했고, 연분홍 복사꽃은 환상적인 무릉도원을 연출했다. 날씨가 일시에 풀어져서 그런지 이번 봄꽃들은 더 선명하고 눈부셨던 것 같다.

평소 꽃에 대해 감동하지 않던 후배스님도 이번 봄날에는 "배꽃이 참 매력적이네요."라며 입을 열었다. 꽃은 이처럼 자연에 무관심했던 심성을 되돌려 놓게 하는 맑은 기운이 있는 것이다.

봄 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 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가수 양희은, 인생의 선물 中

올해는 다른 때와 달리 피는 꽃도, 지는 꽃도 아름답다. 점점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일까. 이제는 꽃지는 풍경에 더 마음이 끌린다. 우리 절 작은 연못에 꽃잎이 떨어져 온통 꽃밭이 되었다. 그 광경을 보며 '떨어져 다시 핀 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개화의 순간만 꽃이랴, 지는 꽃도 꽃이다.

지는 꽃도 꽃이듯 인생의 노년도 저렇게 아름답고 값질 것이다. 누가 젊음만 찬란하고 소중하다 할 것인가. 분분한 낙화가 마무리하는 인생도 곱고 의미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하긴, 세월을 다시 돌려



준다 해도 안갯길 같은 미지의 길이라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굴곡진 길을 휘적휘적 걸어온 지금이 차라리 편안하고 홀가분할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이제 그 길을 걸으며 삶의 가르침을 경험해야 할 나이라면, 우리는 그 숙제를 마친 세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춘을 되돌려 받는다 하여도 어깨춤을 추며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리라.

어쩌면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고마운 선물'일 수 있는 것이다. 나이 들고 주름살 늘어나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오히려 현명해지고 엄숙해졌다. 이것은 긴 세월을 건너왔기에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사물의 이치를 달관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 철학과 순리를 배울 수 있었던 순간들이 무척 많았다는 뜻이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거칠고 모났던 성격도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해지고, 옹졸하고 인색하던 마음 씀씀이도 너그러워지고 유연해졌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순응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 이런 변화는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다.

이러할진데, 나이 먹는 일이 반드시 서럽고 억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봄 산에 피는 꽃도, 봄 산에 지는 꽃도 모두 봄날의 풍경이듯 청춘과 중년 상관없이 그 과정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노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이 듦의 즐거움을 누리면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더 점수를 주며 만족하게 되는 것 같다.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지금, 없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월 9일 생전예수재회향



4월 13일 방생순례



4월 22일 천년의 향기 1차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3. 5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3.12 다도반법회	2 13 합창단법회	3 14	4 15 보름	5 어린이날 16 산신재회향 미륵재일 철야기도	6 17 광명진언기도
7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8 어버이날 19	9 20	10 21	11 22	12 23	13 24 관음재일
14 25	15 스승의날 26 다도반법회	16 27	17 28	18 29	19 30	20 4.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다라니독송기도 보현회법회 법주회 법회
21 소만 2	22 3 신중기도회향	23 4	24 5	25 곡우 6	26 7	27 8 부처님오신날 약사재일
28 9	29 10	30 11	31 12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5**월 **6**일(음 3월 17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5**월 **20**일(음 4월 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법주사 산신대재

산은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 사이에 자리 잡아
그 두 세계를 연결한다고 하여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산을 외경심과 존중으로 대하고 산은 어머니처럼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특히 국가에 어려움이 오거나 천재지변을 극복해야
할 때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 반드시 중요한 명산에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한반도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속리산은 많은 왕들이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 기도하던 명산으로 계묘년 법주사 산신대재를 맞아 산신님께 기도를 통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산신기도입재** : 2023년 **4**월 **29**일(음 3월 10일) 토요일
- **산신기도회향** : 2023년 **5**월 **5**일(음 3월 16일) 금요일
- **동 참 비** : 3만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 의** : 원주실 043-543-4755

공양물 올려드립니다.

- 공양미 : 20kg 8만원 / 10kg 4만원
- 국 수 : 1박스 4만원
- 미 역 : 1kg 2만 5천원
- 과일 / 떡 / 채소 등 공양시주 받습니다



법주사 능인전 비로자나부처님 개금
나한님 개채 불사 회향 및 점안 법회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앞에 능인전이 있습니다.
이곳 능인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두분의 보살님
그리고 열여섯분의 나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살님과 나한님은 부처님과 같이 금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고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러한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불사를 개채改彩라고 말합니다.
금번 법주사 능인전 개채불사는 보살님 2분과 나한님 16분에게 새롭게 옷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중생들의 불사의 마음이 나한님들께 닿아 불사의 인연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개채불사와 기도의 원력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 **일 시** : 불기 2567년 **5**월 **5**일 (음 3월 16일) 금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능인전
- **문 의** : 원주실 : 043-543-4755

미륵대불 회향 33주기

불기 2567(2023)년 5월 5일(음력 3월 16일)
금동미륵대불 조성 3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법회가 융성하고
개개인의 소원하는바 성취되기를 함께 기원합시다.

- **일 시** : 불기 2567년 **5**월 **5**일 (음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